

‘행복으路’ 걸으면 건강이 쑥 ↑

광주 광산구, 면역력·활력 증진 위한 대대적 걷기 정책 추진 풍영정천 정비·스마트 운동기기 설치 ... 다양한 코스도 개발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일상 시대를 대비해 시민 면역력과 활력 증진을 목표로 대대적인 걷기 정책을 추진한다.

24일 광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상 시대에 시민 건강과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걷기를 생활화하는 ‘행복으路 걷기 광산’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코로나 일상 시대에 동네 헬스클럽과 공공 생활 체육시설 등 시민 운동 공간 이용이 제약된 만큼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걷기 자체가 다리와 허리 근육 강화, 심폐기능 향상, 비만 예방, 성인병 예방,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능이 있어 비대면 일상에서 시민의 건강 강화와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는 광산구는 걷기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조성, 네트워크 구축, 걷기 콘텐츠 제공 등의 사업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가장 먼저 광주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구간별로 나눠 걷기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풍영정천과 산책로를 정비하고, LED 조명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이 가미된 스마트 운동기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걷기 코스도 개발 중이다.

또 걷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걷기 자문위원회 구성, 숨은 걷기 동아리 발굴, 동·마을·사회단체·클럽별 걷기 동호회 모임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광산구는 시민의 걷기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시민이 즐겁게 걸을 기회를 제공한다. 계획이다.

광산구는 걷기광산 발대식을 시작으로 페스티

벌 개최, 테마워킹데이 운영, 모바일 걷기 앱과 챌린지 운영, 가상공간(VR) 걷기 프로그램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달 21일에는 모바일 걷기 앱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협약으로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걷기를 하는 광산주민은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는 앱에 올라온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모바일 상품권 등 선물도 지급한다.

걷기 지도사 양성교육에 참여할 시민도 모집하고 있다. 24일까지 모집된 교육 참여자들은 대한 걷기협회 전문강사 4명의 지도로 올바른 걷기 운동 이론과 걷기 방법 실습을 병행한다.

교육을 수료하면 걷기 지도사 2급 자격증을 얻는데, 광산구는 이들에게 행복으로 걷기광산 활동을 보장해 지역사회 건강 리더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산구는 다음달 초 수완호수공원에서 ‘행복으로 걷기 광산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광산구 선운지구 황룡 친수공원 일대에서 지난해 10월 열린 ‘광산구청장기 생활체육트레킹 대회’에 참여한 주민들이 걷기 코스를 완주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특별단속

광주시, 3월까지 배출시설 무허가·부적정 등 점검

광주시는 “겨울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3월까지며,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공사장 비산먼지 날림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세론·살수시설, 방진벽 등) ▲환경 관련법 준

수 여부 등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미가동 등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켜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현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LC타워 앞에 설치된 스마트도서관 첨단점.

도서관 책 검색 이젠 스마트폰으로

광산구, 스마트도서관 8개 도서관 연결 시스템 구축

광주 광산구는 “도서관 앱(app) ‘리브로피아’와 스마트도서관 8개소를 연결해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365일 무인 자동화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의 비대면 도서 대여처로 인기가 있다. 이번 스마트도서관 앱 연동으로 광산구통합도서관 회원 누구나 어디서나 광산구 스마트도서관의 도서를 검색할 수 있고, 대출 현황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광산지역 각 스마트도서관에는 신간 도서와

베스트셀러 200여권씩이 비치돼있다. 특히, 첨단·수완·광산구청·평동의 스마트도서관에서는 회원증 이외에 신분증으로도 책을 빌릴 수 있다.

광산구는 독서 활성화, 지식정보 격차 해소 등을 위해 ‘U-도서관서비스 구축지원 사업’으로 2019년 신창·송정공원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했다. 이듬해에는 첨단·수완·광산구청·평동·월곡·하남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스마트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이야기꽃도서관·신가도서관 문광부 주최 ‘1관 1단’ 공모에 선정

창의적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광산구립 이야기꽃도서관과 신가도서관은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주관의 ‘2021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1단’ 운영기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1관1단 공모는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이 지역주민의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 계획을 설계하면 최대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광주에서는 광산지역 도서관 2곳을 포함해 총 3곳이 선정됐다.

광산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서관을 창조적 공간으로 바꾸는 동시에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형

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처음 선정된 이야기꽃도서관은,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그림책 만들기’ 과정을 진행한다.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신가도서관은, 직장인 대상 야간 프로그램인 ‘일상의 예술, 프랑스 자수를 수놓다’를 운영한다.

완성된 그림책과 자수 작품은 전시 등으로 홍보하고, 참여 주민에게는 동아리 참여 등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3월부터 진행되는 공모사업 참여 등 자세한 안내는 각각 이야기꽃도서관과 신가도서관에서 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